

3분기 GDP 1% 성장... 한은 “4분기부터 소비 회복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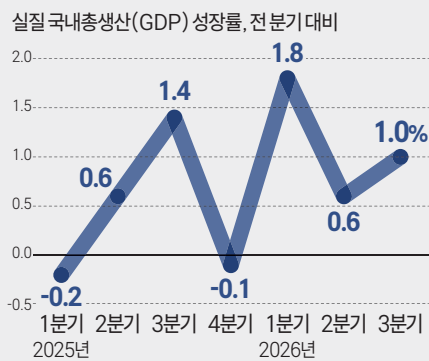
성장률 반등에도 민간소비 소폭 감소
전분기비 실질 국내총소득 3.4% ↑
원화 강세·국제 유가 등 변수 작용

3분기 민간소비가 전분기보다 0.2% 감소했지만, 한국은행은 차량 인도 지연의 영향 완화와 가계소득 개선에 힘입어 4분기부터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업의 배당·성과급 지급을 회복의 지원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높은 가계 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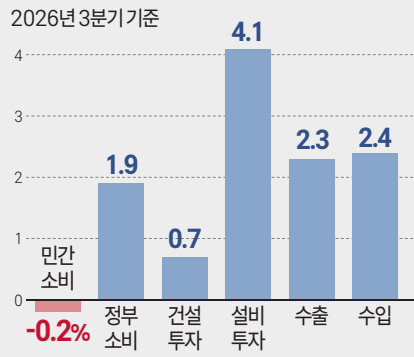
27일 한은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1.0% 성장했지만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성장률 반등과 가계의 소비 회복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셈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추이



주요 부문별



◆ 파업·주식거래 감소가 소비에 남긴 충격

한은은 자동차업체 파업과 증시 조정에서 오는 자동차 판매 감소가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6%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국장은 “두 가지 특이요인이 없었다면 민간소비는 0.2% 감소가 아니라 0.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소비에는 차량 인도 시점이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업체 파업으로 완성차 출고와 인도가 늦어지면서 해당 분기의 승용차 소비가 줄었다. 인도가 뒤로 밀린 부분은 이후 소비로 반영될 수 있어, 이번 감소를 구매 수요 위축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융서비스 소비도 주식거래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7월 이후 증시 조정으로 거

래가 줄면서 증권거래 수수료 등 가계가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축소됐다. 주식을 사고파는 금액 자체가 소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소비에 반영되는 구조다.

증시 불안은 가계의 경기 인식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4로 전월보다 1.2p 하락했다.

김세용 한은 경제심리조사팀 과장은 소비심리 하락 배경에 대해 “국내 증시 조정, 중동지역 충돌 지속 등으로 비관적 경기전망이 다소 늘면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배당·성과급이 가계소득으로

소비 회복을 판단하려면 국내 전체의 구매력과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도 구분해야 한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보다 3.4% 늘었다. 다만 GDI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반영한 국내 전체의 실질구매력 지표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의 소비 여력으로 이어지려면 임금·성과급·배당 등 소득의 전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국장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반도체 기업의 올해 4분기 현금 배당과 내년 1분기 성과급 지급이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정부 이전지출 확대도 소비 지원 요인으로 제시했다.

당장의 회복에는 차량 인도 지연의 영향이 완화되는지도 중요하다. 이 국장은 10월 들어 승용차 소비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서비스 소비의 회복은 증시 조정이 언제 마무리되는지와 거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완화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지만 국제유가 등 대외 여건이 변수다. 한은은 유가가 안정된다면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완화 효과가 가계 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감소 요인의 해소와 소득 개선이 가계 전반의 지출 확대에 얼마나 이어질지가 회복의 관건이다. 이 국장은 높은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부담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민간소비의 개선세가 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2026 죽변항 수산물축제

2026.11.6(금) - 2026.11.8(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일원

개막식 · 2026.11.7(토)

◆ **개막축하공연** ◆

나태주

11. 6. (금)

박서진

11. 7. (토)

박현빈

박주희

MBN

11. 8. (일)

맨손알어잡기 · 수산물해체쇼 · 어선퍼레이드

주최·주관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후원 울진군 울진군의회

한수위·주 한울원자력본부 울진죽변수협

고리원전 3·4호기 재가동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안 최종 의결
한수원, 3개월 뒤 상업운전 재개 전망

설계수명이 만료돼 멈춰 서 있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수명 연장) 허가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는 향후 설비 개선과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본격 재가동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7일 제17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했다. 표결 결과 박종운·진재용 위원 등 2명이 반대했으나 나머지 위원 5명이 찬성하면서 재적위원 9명의 과반을 넘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1984년과 1985년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고리 3·4호기(1025MW급)의 운전 수명은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씩 연장된다. 설계수명 40년이 지나 각각 2024년 9월 28일과

2025년 8월 6일 운전이 중단됐던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이번 승인에 따라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가동이 가능해졌다.

원안위는 이번 심의에서 KINS의 안전성 심사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법령 기준 적합성, ▲발전소 운전 기간 변경 및 기기 교체 등 운영변경허가 신청 내용의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했으며, 계속운전 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계속운전 허가안이 확정됨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른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현장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재가동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허가 후 약 3개월 뒤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임금근로자 절반, 월 300만원 못 벌어

데이터처, 5명 중 1명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월 3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에 대한 임금은 200만 원을 넘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수는 22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수준별로 월 100만 원 미만은 219만7000명으로 9.8%, 100만~200만

원 미만은 207만8000명으로 9.3%를 차지했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649만명으로 29.0%였다. 이를 합치면 3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총 1076만5000명으로 전체의 48.1%였다. 200만 원 미만은 427만5000명으로 19.1%에 달했다.

월 300만~400만 원은 510만명으로 22.8%, 400만~500만 원은 257만6000명으로 비중 11.5%를 기록했다. 500만 원 이상은 393만1000명으로 17.6%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